

16년 공사 끝 보성비봉 공룡공원 문 연다

350억 들여 25만㎡ 규모 조성

28일 특량 비봉리서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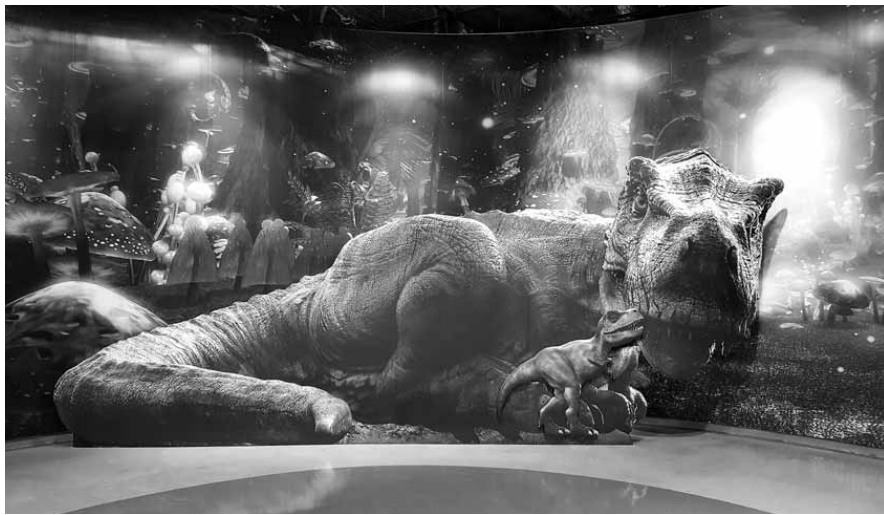
전시실에 공룡 로봇쇼도

보성군 공룡관광 중심지 부상

보성군이 공룡관광의 중심지가 될 ‘보성비봉공룡공원’을 개관한다.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 공룡공원은 16년간의 오랜 준비 끝에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8일 특량면 비봉리에서 보성비봉공룡공원 개관식을 연다. 보성비봉공룡공원은 지난 2004년 2월 천연기념물 제418호(2000년 4월 지정)인 중생대 백악기 ‘비봉공룡알 화석지’를 소재로 특량면 비봉리 일원에 착공했다.

전체 공원부지는 25만9274㎡ 규모이며, 총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공룡생태관인 다이노파크(Dino park)를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752㎡ 규모로 조성했다.



보성비봉공룡공원 내 공룡생태관 ‘다이노 파크’에 설치된 공룡 조형물. <보성군 제공>

지하 1층 로비공간에는 다이노 카페, 다이노 샵, 매표소, 안내데스크를 배치했으며, 전시홀에는 지질시대별 특징 및 아시아 공룡 화석에 대한 설명과 보성에서 산출된 공룡 화석 실물을 전시했다.

1432㎡ 규모의 공연장에는 가로 42m 세로 9m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3D영상을 상영하고, 대형 공룡 로봇이 쇼를 펼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라케라톱스 화석이 전시된 수장고와 공연 관람전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공룡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연대기홀 등도 마련했다.

지상 1층은 다이노빌리지, 기획전시실, 무대관리실로 꾸몄다. 다이노빌리지는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사는 마을’로, 공룡을 의인화해 관광객이 알을 위탁·분양받아 보호하고 부화를 도우며 공룡의 어미에게 돌려주는 ‘일일 위탁모’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은 공룡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무대관리실은 공연장의 무대장치 및 대형공룡로봇 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비봉공룡공원을 개관함으로써 보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룡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성비봉공룡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업체로 지난 10월 ㈜한국공룡월드를 선정했다. 입장료는 어린이 2000원, 청소년·군인은 3000원, 어른 4000원이며, 20명 이상 단체입장할 경우 각 1000원씩 할인한다. 공연장 관람료는 개인 1만5000원, 단체 1만2000원이며 보성군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해창만 오토캠핑장서 ‘우주캠핑’

고흥군은 “봄 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해창만 오토캠핑장(사진)에서 ‘아빠와 함께 우주캠핑’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과 모두투어(고흥관광 활성화 MOU 체결)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가족캠프로, 해창만 오토캠핑장 글램핑 숙박 관광지 스탬프투어 및 입장료 할인, 캠핑요리만들기, SNS 홍보 확산 이벤트로 구성된다.

‘관광지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 14개소(우주체험시설 3개소 등 예정)중 글램핑 객실에 배부되는 스탬프 용지에 도장을 받아 투어 종료시 용지에 찍힌 도장을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 스탬프 용지 지참시 입장료·체험료 등의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특히, ‘캠핑요리만들기’에서는 지역 제철 식재료와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캠핑요리를 만들어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SNS 홍보 확산 이벤트’는 캠프 일정 내에 방문한 관광지나 행사 관련된 내용을 SNS에 홍보해 최다 공유 획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캠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관광과(061-830-5347)로 문의 가능하며,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j@

국산꽃도 원산지 표시 꼭 하세요

국화·장미·백합 등 11개 품목 신규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올해부터 국산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대상 포함 11개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클라디올라,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갈라, 안개꽃 등이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꽃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 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꽃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및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곡성·구례 농관원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

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절화류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춘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절화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고흥 ‘찾아가는 마을소품’ 시끌벅적

어린이집 원생들 마을 찾아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고흥군이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 소품’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이웃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마을소품’을 운영중이다.

최근에도 고흥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호형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을 구경하고, 전통 연 만들기 체험했으

며, 그동안 갖고 있던 재물을 뽐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지역내 각계각층에서도 뜻을 모아 ‘찾아가는 마을 소품’시 전통놀이 지도와 간식 제공 등 재능기부와 후원에 나서고 있다.

전석봉 고흥군 호형마을 이장은 “모처럼 아이들이 마을을 찾아오니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옛날 복자였던 그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즐거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j@

곡성군 농번기 85개 마을 공동급식 지원

곡성군은 “농번기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덜고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를 위한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마을회관에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되고 참여인원이 20인 이상으로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 농번기

철인 4~11월 중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현재 85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중 곡성군 농정과장은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 공동체 문화조성에도 효과가 있어 2018년까지 지원 대상 마을을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ijim@

구례경찰 3대 반칙 근절, 농산물에 이색 홍보 ‘눈길’

시골마을 경찰관들이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이색 아이디어를 실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구례경찰서 문척치안센터(센터장 이진국)에 따르면 3대 반칙 행위(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근절을 위한 대주민 홍보스티커를 제작하고, 오이, 고사리 등 각종 농산물 출하 상자에 부착·판매하고 있다.<사진> 이를 통해 생산농민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에게도 3대 반칙 행위 홍보 효과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게 구례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홍보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구례



농협 조재원 조합장은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농민부터 농산물을 유통하는 상인, 소비자까지 세 번의 홍보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 출하하는 생산물 전체에 대해 3대 반칙 행위 근절 스티커를 부착한 뒤 유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상담예약 필수!

담당 최 선 규
H. 010-3605-5000